

K조선, 초대형·친환경 선박으로 새역사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등 조선 3사는 1조~2조 원 대의 초대형 수주 계약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1분기에만 연간 목표의 20~65%를 달성했다. 조선 3사의 1분기 수주 달성 금액은 총 118억6000만 달러(약 13조 4433억 원)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맞물려 선박 발주량이 크게 늘어났고 조선 시황 회복의 수혜를 중국과 일본을 따돌린 국내 조선사들이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올 1분기 역대급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맞물려 선박 발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조선3사, 초대형 수주 잇달아 성공 삼성, 대형 컨테이너선 점유율 1위 현대는 올해 목표액의 33.5% 달성 대우조선, 이중연료추진선박 수주 수에즈 운하 사고로 반사이익 전망

●삼성중공업, 2조8000억 단일계약 신기록

삼성중공업은 26일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에서 1만5000TEU급(1TEU: 길이 6m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80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세계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 짜릿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한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3척을 포함해 올해 3월까지(29일 기준) 42척, 총 51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78억 달러)의 65%를 달성했다. 수주 잔액도 258억 달러(약 29조1430억 원)로 늘어나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영국의 조선해양시황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만 2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총 66척 중 삼성중공업이 절반(34척, 52%)을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되면서 컨테이너선과 원유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올해 1~3월(29일 기준)까지 총 61척, 약 50억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149억 달러)의 약 33.5%를 달성했다. 총 61척(컨테이너선 24, LNG 2, LPG 15, VLCC 9, PC 11) 중 가장 많은 수주를 기록한 선종은 컨테이너선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컨테이너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주 문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적극 나서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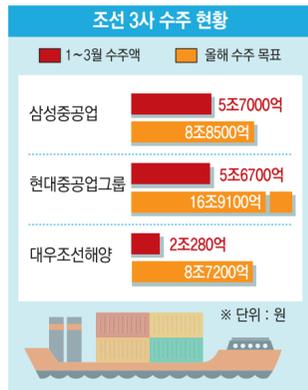
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암모니아,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현대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순항

대우조선해양도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3월 초대형원유운반선 10척, 초대형LPG운반선 5척, 컨테이너선 4척 등 총 19척 17억9000만 달러(약 2조 280억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목표 77억 달러(약 8조 7241억 원) 대비 약 23%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한 19척의 선박 중 80%에 가까운 15척이 이중연료 추진선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크, LPG추진 LP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 유조선까지 수주하며 전 선종에 대해 이중연료추진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대형원유운반선 건조실적을 갖고 있는 만큼 친환경 유조선 분야



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국내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과 LNG 추진 선박 등 초대형,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들이 규모의 경제 구현에 나섰다 때문이다.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있는 한국의 조선 3사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대형 수주를 연이어 따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초대형,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술에서 앞서 있는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랠리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도 조선 3사에는 호재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 기븐'이 일본 이마바리조선소가 건조한 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이다. 고장이 잦은 것으로 유명한 중국 건조 선박은 이미 초대형 선박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데다,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마저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내 조선 3사는 하반기 더욱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원성경 기자 sereno@donga.com

SK E&S, 호주 해상가스전에 투자 매장량 7000만톤 친환경 LNG 개발



SKE&S가 개발 예정인 호주 바로스-깁디파 가스전 전경. 사진제공 SK E&S

SK E&S가 호주 바로스-깁디파 해상가스전 개발에 최종 투자를 결정하고 매장량 7000만 톤 이상의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생산에 착수한다.

호주 북부에 위치한 해상 가스전으로

2012년부터 호주 에너지기업 산토스와 함께 조사, 개발에 참여해왔다. 그간 매장량 평가, 인허가, 설계 작업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향후 5년 간 14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최종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개발되는 곳은 바로스 가스전으로 현재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만 7000만 톤 이상이 달한다. 이는 국내 연간 소비량인 약 4000만 톤의 약 2배 가까운 규모이며 최초 사업 참여 당시 예상했던 매장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바로스 가스전 북쪽과 깁디파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까지 합하면 향후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부터 20년 간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CCS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저탄소 LNG를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025년부터 호주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LNG를 국내로 들여와 충남 보령 인근 지역에 건설 예정인 수소생산 플랜트를 통해 청정수소도 생산할 계획이다. 추후 SK E&S 사장은 "수소생산의 원료가 되는 LNG를 장기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스마트·친환경 선박이 상반기 수주 선도

조선 3사의 상반기 수주를 이끈 선종의 특징은 스마트 기능을 갖춘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인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조선 3사는 저마다의 연료 절감 기술과 친환경 선박 기술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조선 3사 대표 선박의 특징을 살펴봤다.

●삼성중공업 : 초대형 컨테이너선

삼성중공업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는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에스베셀(SVESSEL)'이 탑재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다. 에스베셀은 선박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최신ICT 기술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선박 항로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최적 운항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료 소모량, 안전성 등을 감지하고 자동 보고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 삼성중공업의 대표적인 기술은 선박 외판에 장착해 선체 주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인 세이버 핀(SAVER Fin)이다.

●대우조선해양 : LNG 이중연료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한 19척의 선박 중 무려 80%에 가까운 15척이 이중연료 추진선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추진엔진(ME-GI 엔진)과 저압추진엔진(X-DF 엔진) 모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십 솔루션인 'DS4(DSME Smart Ship Platform)'도 장착되어 있다.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쉽게 연결 및 호환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그룹 : LNG추진선

올해 1분기에는 컨테이너선 수주가 가장 많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의 주력 선종

은 LNG추진선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추진선박에 대한 세계 각국 선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LNG는 기존선박 연료인 bunkerC에 비해 황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85%, 온실가스 배출을 25% 이상 절감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7월과 지난해 9월 각각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 유조선과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하는 등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50척, 49억 달러(약 5조 5517억 원)의 LNG추진선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원성경 기자



현대중공업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삼성중공업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우조선해양 LNG 이중연료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박경희의 운수 좋은 날

3월 31일(수) 음력: 2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감언이설에 조심할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 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황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될 것으로 노력하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가 생김으로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절제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집살일이 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응답실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비뚤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지살 일에는 움직여야 한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 본다. 침착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심모락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방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학업,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대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대는 이루어진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라.

오늘의 날씨			31일(수)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7 21	6 16	2 22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7 19	3 23	5 22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7 24	6 23	10 19
창원 0/0	제주 0/0	지역	7 20	11 20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47호

발행인: 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영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9
 2008년 3월 31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